

생애사적 접근을 통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지역민의 기억과 역사 인식

모춘홍*

목 차

- | | |
|--|------------|
| 1. 머리말 | 5. 맺음말 |
| 2. 기억과 망각, 그리고 생성으로서의 역사 | 참고문헌 |
| 3. 자료수집과 자료분석 방법 | <Abstract> |
| 4. 연구주체들의 생애사에서 나타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역사경험 | |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주체자가 자신의 시각에서 삶을 (재)구성해가는 과정에 주목하는 생애사적 접근으로 동학농민혁명의 현재적 의미를 살펴본다. 보다 구체적으로 필자는 국가 중심, 기록중심의 역사가 아닌, 현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은 동학농민혁명을 어떻게 인식하며, 이러한 인식을 어떻게 구성해 나가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생애사적 내러티브 면접(biographical narrative interview)’을 통해 세 명의 일반인들이 그려내는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기억과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구성해나가는지를 규명한다.

본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세 명의 연구주체들의 생애사에서 나타나는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개인적 역사경험은 경험방식과 세대요인이 맞물리면서 그들의 생애사에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재구성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필자는 세 명의 연구주체들이 함께 살고, 체험했던 정읍이라는 장소가 한편으로는 동학농민혁명에

* 한양대학교 갈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E-mail: trichun@naver.com

대한 집단적인 의미와 상징을 공유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곳에서 경험한 역사는 개별화된 방식의 현재성을 보인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동학농민혁명을 사유하고 경험하는 방식은 혁명의 자취를 담고 있는 장소에 여전히 위치하고 있는 ‘남겨진 자’를 통해서 경험되며, 이러한 간접적인 역사경험의 현재성은 역사주체들 간에 ‘분리성’과 ‘절합성’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주제어 : 동학농민혁명, 기억, 인식, 역사경험, 생애사

1. 머리말

1) 문제제기

“어떤 이야기도 무시하지 않고, 더 중요한 이야기와 덜 중요한 이야기로 차별하지 않으며, 말해질 수 있는 이야기로 말해질 수 없는 이야기를 억압하지 않겠다는 듯 모여 있는 이 (이야기들의) 집합의 명목들, 그 공존의 의지를, ‘역사’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¹⁾

김연수 작가가 쓴 『네가 누구든 얼마든 외롭든』이라는 제목의 책에 대해 백지은 문학평론가 해설의 한 대목이다. 위의 글에서 볼 수 있듯이, 백지은은 기록되지 않은 역사가 갖는 의미를 나름 제시했다. 다양한 의미의 역사에 대한 정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역사는 “인류 사회의 변천과 흥망의 과정, 또는 그 기록”으로 이해된다.²⁾ 물론 역사(경험)은 과거에 속박된 채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공간)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의 현재적 삶에도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현재성’을 담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역사적 사건에 관한 연구들은 역사적 사건에 불박여 연구가 진행되어왔으며, 이 점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연구도 예외는 아니다. 즉 기존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연구들은 역사적 사료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동학농민혁명의 발생 배경과 전개 과정, 그리고 근현대사적 의미 등을 분석하는 데 집중됐다. 이런 연구들은 동학농민혁명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와 정신을 현재에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1) 백지은, 2014, 『설화적 모더니즘: 라틴문학에 미술적 리얼리즘이 있다면』, 김연수, 『네가 누구든 얼마든 외롭든』 문학동네, 387쪽.

2) 『네이버 국어사전』 (검색일: 2021년 8월 26일).

다. 또한 2019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서 국가 주도의 동학농민혁명 계승사업의 추진과 동학농민혁명을 한국 민주주의의 뿌리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의 금기된 역사로서 동학농민혁명이 위치 지워져 역사적 의의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 연구들이 갖는 학문적 의의는 결코 작지 않다.

그러나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동학농민혁명을 연구할 때, 여전히 규명되지 않고 있는 지점은 동학농민혁명의 기억 양상과 그에 따른 의미이다. 특히 동학농민혁명은 오랫동안 관에 대한 ‘반란’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이에 동학농민혁명을 기억하는 전승자의 체험담 및 기록되지 않은 기억과 경험들이 대부분 사장되었다. 물론 일부 연구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참혹한 시체를 수습했던 배우자인 여성들의 기억과 그 의미를 분석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한 연구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이 한국 민주주의의 시원(始原)이 아닌, 금기된 역사로서 가장의 생명을 앗고 집안을 파멸로 이끈 가화(家禍)로 그려지고 있다.³⁾ 이렇듯 같은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도 전혀 다른 해석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 즉 아래로부터의 기억과 기록되지 않은 경험이 최근 역사학에서 주목받고 있다.

그렇다면 일반인들에게 있어서 동학농민혁명은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가? 이에 대한 답을 본 연구는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세 명의 일반인들이 기억을 통해서 찾는다. 이를 위해 필자는 주체자가 자신의 시각에서 삶을 (재)구성해가는 과정에 주목하는 생애사적 접근으로 동학농민혁명의 현재적 의미를 살펴본다. 국가 중심, 기록중심의 역사가 아닌, 현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은 동학농민혁명을 어떻게 인식하며, 이러한 인식을 어떻게 구성해 나가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역사적 사건의 의의를 이미 주어진 사료에 대한 분석에 그치지 않고, 그 역사적 사건의 현재적 의의를 현시대의 의미맥락을 중시하는 해석적, 발견론적 관점에서 규명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과 연구방법론은 그간 동학농민혁명 연구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역사적 사건과 그 사건에 대한 기억을 남기는 것은 역사가 기록되기 시작한 이래 항상 관찰되어온 자연스럽고 평범한 일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역사는

3) 박상란, 2017, 『금기된 과거사에 대한 여성의 기억과 의미: 여계(女系)전승 동학농민혁명담을 중심으로』, 『동학학보』 44, 동학학회.

순수한 사실의 축적이 아니며 역사적 기록이라는 것 자체가 역사적 기억과 정치 현상 사이의 밀접한 관계이다. 이때 국가는 정치 공동체의 과거를 기억하는 데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며, 이점에서는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⁴⁾

그러나 역사적 사건 혹은 과거에 대한 기억에 관한 현상 및 연구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이 ‘기록되지 않는 경험’이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이다. 기존의 전문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역사학에서 역사 기술이 아래로부터의 역사라는 관점에 따라 사회사, 문화사로 확장되거나 분석의 중심이 이전되면서 문자화된 사료가 가지는 한계에 대한 반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말하자면 과거를 기억하는 데 비역사학자들의 참여가 긴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⁵⁾

이 연구의 목적은 필자를 포함한 일반인들은 국가에 의해서 기록되고 건립된 역사적 기록과 공적 기념물을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분석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2019년 2월 19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동학농민혁명과 관련 기념물들을 국가중심의 단일한 맥락에 가두어 해석하기보다 동학농민혁명과 관련 기념물들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했던 행위자들의 시각을 중심으로 동학농민혁명의 현대적 함의를 찾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실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와 관련 기념물, 그리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위치하고 있는 전라북도 정읍시 황토현 전적지 근처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동학농민혁명을 체험하면서 성장한 세 명의 일반인들이 기억하는 동학농민혁명의 의미를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첫째, 이 세 명의 일반인들은 동학농민운동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둘째, 이러한 인식은 언제부터 생겼으며, 과거에 형성된 인식이 지금까지 바뀌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지. 셋째, 이들은 2019년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이상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필자는 생애사적 접근을 중심으로 세 명의 일반인들이 그려내고, 새롭게 재구성하는 동학농민혁명의 현재적 함의를 도출한다.

본 연구는 역사적 사건의 의미는 새롭게 재구성될 수 있다는 발견론적 시각에 기초하고 있다. 말하자면 기록된 역사의 의미를 있는 그대로 해석하기 보다는 역사를 주체자 스스로의 해석을 통해 이해해 가는 과정 속에서 역사적 사건의 현재적 함의가 새롭게 제시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필자는 동학농민혁명의 현재적 함의를 규명하기 위해서 생애사

4) 전희진·박광형, 2016, 『역사적 기억의 덧쓰기(palimpsest)에 대한 국면사적 접근: “용산 전쟁 기념관”과 “제주 4·3 평화공원”의 비교』, 『문화와 정치』 3(1),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3쪽.

5) 전희진·박광형, 2016, 위의 논문, 5쪽.

적 연구 방법을 활용한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구술된 개인의 생애를 기초 자료로 삼는 생애사적 접근법은 문헌사에 대비되는 개념이며, 거대 집단이 아닌 개인이란 시각에서 역사쓰기를 하는 방법론이다. 즉 소규모 집단에 속하는 구체적 개인이란 ‘창’을 통해 역사적 리얼리티의 관계망을 이해하고, 이를 현재적으로 재구성한다. 또한 생애사는 특정한 시간적·공간적 현재에서 과거의 삶과 생애과정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애사에 대한 이야기는 현재 자기 모습에 대한 위치점검, 평가, 살아온 삶에 대한 정당화와 일관성 창출을 위한 의미부여의 성격을 가진다. 말하자면 개인은 생애사에 대한 서술행위를 통해 현재에 기반을 두고 시간적으로 구조화되는 고유한 개인의 상을 재해석하여 구성한다.

본 연구에서 생애사적 접근법을 활용하는 이유는 생애사에서는 개인적인 경험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것의 경험적 맥락이 중시될 경우 마을사, 지역사 또는 국가사를 재구성하는데 있어서 일차 사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정읍시 황토현 전적지 근처에서 태어난 세 명의 일반인들의 삶에서 동학농민혁명은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며, 이들이 시공간적 현재에서 동학농민혁명이 이들의 과거의 삶과 생애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는 데 주목한다. 말하자면 필자는 이 세 명의 일반인들이 그려내는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기억과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구성해나가는지를 규명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생애사적 내러티브 면접(biographical narrative interview)’을 통해 이 세 명의 일반인들이 자신의 삶의 경험을 구술하고 분석하고 관계를 만들어내고 발전하는 자기생성적인 삶에 대한 자료를 모으고, 이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해 나갈 것이다.

2. 기억과 망각, 그리고 생성으로서의 역사

한 개인이 생애사에서 경험하는 역사는 ‘개인적’ 경험과 ‘간접적’ 경험이라는 두 가지 층위가 혼재되어 있다. 대개 사람들이 경험하는 역사적 사건은 특정 역사와 관련된 것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개인화된 간접적인 역사이며, 이러한 경험은 한 개인의 생애사에서 나타난다.

물론 일반인들이 텍스트로 접하게 되는 개인적이고도 직접적인 역사경험은 증언(록)과 체험담 등에 기초하고 있고, 이러한 자료들은 ‘기억 서사(memory narrative)’라는 작업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어떠한 경험은 ‘은폐’되거나 아니

면 ‘미화’ 혹은 ‘확대·과장’되곤 한다. 특히 전쟁과 식민화에 대한 역사경험은 이데올로기적 정체성 문제와 뒤엉켜 표출되며, 이러한 경험들은 취사선택의 기억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높다.⁶⁾

한편 전쟁과 식민화에 대한 역사가 텍스트화된 판본으로 선택되는 과정에는 국가가 개입(혹은 국가의 개입을 필요로)을 하게 된다. 국가는 특정 역사적 사건의 발생 배경과 전개 양상, 그 사건의 의미 등을 제시하며, 그 과정에서 역사체험(경험)은 편집되곤 한다. 이런 맥락에서 얀 반시나(Jan Vansina)는 역사적 기억작업에 활용되는 구술자의 기억을 “편집된 판본”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⁷⁾

그렇다면 국가는 왜 역사(경험)적 기억에 개입을 하나? 역사적 기억이 갖고 있는 사회적 의미에 주목하면, 이 물음에 대한 답에 네 개의 키워드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 ‘기억’, ‘권력’, ‘재현’이 바로 그것이다. 기능론적 관점에서 보면, 텍스트 형태로 남겨 있는 역사적 기억은 “국가의 자기 기억과 권력의 자기 재현”이라 프레임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억에는 공동체의 질서를 부여하고 이 질서를 통해 사회 통합을 이루려는 목적이 존재한다.⁸⁾

역사는 상징투쟁 양상으로 전개되는 “기억투쟁의 산물”이기도 하다. 나탕 바슈텔(Nathan Wachtel)의 표현을 빌리면, 역사적 기억을 두고 많은 집단들은 “위로부터 강요된 하나의 기억을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그들의 뿌리를 다시 발견하려고 노력”했으며 그 과정에서 “공적인 역사에 반대함으로써 자신들이 주장하는 대안적 기억들이” 나타났다.⁹⁾

기억투쟁의 관점에서 역사서술이 갖는 중요성이 부각 되기 시작한 데에는 여러 가지 배경이 존재한다. 이를 육영수는 다음의 세 가지 측면으로 설명한다. 첫째, 1980년대에 본격화된 독일 나치즘으로 인해 희생된 유대인 학살에 대한 재평가 문제를 둘러싸고 생존자들이 간직한 ‘기억’의 중요성 때문이다. 둘째, 1990년대 전후 독재국가들에서 나타났던 ‘과거청산운동’ 때문이다. 셋째,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세계사적 변화와 그 과정에서 구조론 사회주의체

6) 도날드 A. 리치 엮음, 선동유 외 역, 2016, 『현대 구술사 연구의 현장』 선인, 145쪽.

7) 얀 반시나는 역사적 기억에 대한 많은 회상이 지극히 사적이거나 고통스러워서, 혹은 정당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외된다고 말했다. 얀 반시나 저, 2010, 『기억과 구전』 윤택림 편역, 『구술사, 기억으로 쓰는 역사』 아르케, 61쪽.

8) Jeffrey C. Alexander, 1993, 『Citizen and Enemy as Symbolic Classification: On the Polarizing Discourse of Civil Society』 M. Fournier and M. Lamont eds. *Where Culture Talks: Exclusion and the Making of Society*. Chicago University Press; 전희진·박광형, 2016, 앞의 논문, 8쪽.

9) 나탕 바슈텔, 2010, 『기억과 역사 사이에서』, 윤택림 편역, 『구술사, 기억으로 쓰는 역사』 아르케, 115쪽.

제의 해체와 유럽연합(EU)의 확장도 역사서술을 기억이라는 렌즈에 비춰 재조명하는 데 기여했다.¹⁰⁾

1980년대 말부터 국내 역사학계에서도 역사적 기억을 둘러싼 논쟁에 주목하기 시작하기 시작했다. 전쟁, 식민화, 민주화 등을 경험했었던 사람들의 증언들이 구술사(oral history) 형식으로 채집되면서 역사적 기억에 대한 관심이 촉발됐다. 다만 구술자료가 역사적 기록으로 정리되는 과정에 미묘한 정치적 논리가 개입됐으며, 그 과정에서 구술이 기록의 권위에 의존하여 빈번히 왜곡되기도 하고 과장 및 은폐되곤 했다.

특히 1987년 민주화의 열망과 함께 희생자의 입장에서 역사를 재평가하는 아래로부터의 역사학이 자리잡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를 육영수는 “냉동된 기억을 햇빛 속”으로 나오게 했다고 평가했으며,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가 ‘제주 4·3 사건’,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사건’, ‘광주민주화 운동’, ‘일본군인의 성노예를 강요받았던 위안부 할머니들의 사례’ 등이다.¹¹⁾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역사서술에서 크게 주목받지 않았던 개인의 인권문제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역사적 사건이 발생 배경, 진상, 피해, 담론, 기억 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최근에는 개인이 경험한 인권 유린, 성폭력, 생존노동 등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기록의 형태로 남게 되는 역사서술 역시 기억과 망각의 문제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 이를 박상란은 제주 4·3 사건에 대한 여성의 기억 서사를 다룬 연구에서 기억과 망각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대개 기억되는 것은 강한 인상을 남긴 사건이고, 망각되는 것은 평범한 일상사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특수한 경험의 경우, 망각된 것이 오히려 인상적일 수도 있다. 성폭력 경험도 그 중 하나다. 이때 성폭력 경험은 자신의 삶에서 사소해서가 아니라 충격적이고 위협적이기 때문에 기억에서 밀려났다고 할 수 있다. 정확히 말하면 망각된 것이 아니라 망각한 것이다. 현재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두려움과 공포심 때문이다.”¹²⁾

10) 육영수, 2013, 「역사, 기억과 망각의 투쟁」, 『한국사학사학보』 27, 한국사학사학회, 266-267쪽.

11) 육영수, 위의 논문, 268쪽.

12) 박상란, 2019, 「제주4.3에 대한 여성의 기억서사와 ‘순경 각시」」, 『Journal of Korean Culture』 45,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310쪽.

이렇듯 승자의 입장이 아닌, 희생자의 입장에서 과거 역사를 재평가하는 ‘아래로부터의 역사학’이라는 시각이 주목받고 있다는 점은 역사서술의 측면에서 볼 때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아래로부터의 역사는 역사를 ‘남겨진 과거’의 문제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소통되고 목적의식적으로 구축하는 문제로 이해할 수 있다.¹³⁾

다만 현 시대를 살아가는 일반인들에게 역사(경험)란 무엇인가?라는 물음과 관련하여 새로운 답을 찾기 위해서는 “기억과 망각”사이의 도식이 아닌, 또 다른 측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역사적 기억에 대한 이론적 논의의 주된 관심이 공식적으로 서술된 기억과 공식적 기억에 포함되지 못한 ‘대안적 기억(counter-memory)’이 이데올로기적으로 올바른 역사서술을 둘러싼 문제라면, 본 연구를 관통하는 문제의식은 오늘날 새롭게 인식되어야 할 역사는 일반인들에게 “생성되는 역사(기억)과 생성된 역사(기억)의 재구성”이다.

그렇다면 생성적 관점에서 ‘역사’ 혹은 ‘역사적 기록’은 어떻게 사유되는 것일까? 이는 역사경험이 합리적이거나 목적의식적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개인적 경험 혹은 감정을 따른다는 것을 전제하며, 이제까지 “역사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왔던 통념에 대한 재고를 요한다. 또한 이 문제는 대안적인 자기 생성적 역사(경험)에 대해 이미 존재하는 가시적 사례를 발견하고, 이를 ‘역사-나’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사유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이 진짜 역사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렇지만 역사를 ‘과거에 대한 기억하기(remembering the past)’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소통하기(communicating the present)’로 본다면, 새롭게 생성되는 관점으로 역사(경험)를 다루는 일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3. 자료수집과 자료분석 방법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본 ‘연구주체들’은 2022년 현재 동학농민혁명을 집합적으로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경험해오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 중 A는 전라북도 부안군에서 출생했으며, 1980년에 전라북도 정읍시 덕천면에 태어나 성장한 남편과 결혼을 한 이후, 동학농민혁명을 개인적-간접적으로 경험

13) Foote, Kenneth E., 1990, 『To Remember and Forget: Archives, Memory, and Culture』, *American Archivist*, 53, 340쪽.

하고 있는 사람이다. B와 C는 A의 자녀들이며, 정읍시 덕천면에서 태어나 유년기부터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와 관련 기념행사들을 일상에서 접하면서 성장을 한 사람들이다.

표 1. 연구주체의 일반적 특성

생애사주체	출생 연도 (배우자)	출생 지역	결혼 연도 (연령)	학력	자녀관계	배우자생존여부 및 결혼 상태	직업 경험
A	1956 (1953)	전라북도 부안군	1980 (25)	중졸	1남 1녀	질병사	요양 보호사, 농업, 부녀 회장
B	1981 (1982)	전라북도 정읍시	2015 (35)	대학원졸	1녀	생존, 결혼	주부, 연구원
C	1983 (무)	전라북도 정읍시	무	고졸	무	무	유통업

현재 본 연구주체들은 A를 제외하고는 모두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데 반해, A는 여전히 정읍시 덕천면에 거주하면서 해마다 일정 기간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일과 연관된 삶을 살고 있다. 또한 A는 정읍시 덕천면 소재 마을의 부녀회장을 맡아, 정읍시와 (사)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가 주최/주관하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제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B는 정읍에 소재한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이후 수도권에서 학교를 다녔으며, 현재는 결혼을 하고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또한 B는 민주화 운동과 시민사회 운동이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미친 영향을 깊이 공부하고자, 서울소재 대학교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정치외교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C는 B와 마찬가지로 정읍에 소재한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이후 수도권에서 살고 있다.

이들 세 사람은 서로 다른 세대이지만, 같은 공간에서 살면서 동학농민혁명을 체험하고 경험했지만, 이들의 생애사에서 나타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역사경험의 현재성은 경험방식에 따른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 정읍시 덕천면에서 유년기와 학창시절을 보낸 B와 C의 생애사에서 나타나는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개인적·간접적 역사경험은 A와 여러 층위에서 상이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후술하겠지만, 동학농민혁명을 바라보는 A의 인식의 틀이 그녀의 생애사에서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는 데 반해, B와 C는 자신들의 생애사의 여러 국면에서 변화하고 있다. 또한 B와 C는 같은 세대이지만, 그들의 생애사에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기억과 역사인식은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으며, 특히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B의 인식이 C의 역사인식 형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필자는 세 명의 연구주체들의 생애사에서 동학농민혁명이 차지하는 의미, 특히 이들은 동학농민혁명을 어떻게 인식하며, 이러한 인식이 어떻게 형성되고 재구성되는지를 면밀하게 그려내기 위해 로젠탈(Rosenthal)의 ‘내러티브식-생애사 인터뷰(narrative-biographicisches interview)’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다음의 다섯 단계의 과정을 거쳐 연구를 진행했다.¹⁴⁾ 첫째, 인터뷰의 내용을 연대기적 순서에 따라 분석했다. 둘째, 연대기적으로 분류된 인터뷰 텍스트를 연속적으로 분석했다. 셋째, 체험된 생애사의 재구성을 위해 생애사적 체험과 그 체험이 갖는 함의를 시간적 순서로 재구성했다. 넷째, 체험된 생애사 내의 체험이 갖는 생애사적 의미의 현재성을 도출하기 위해, 과거와 현재 관점의 차이, 그리고 연결된 체험된 생애사의 시간성을 분석했다. 다섯째, 역사(경험)에 대한 연구주체들의 인식 층위의 차이점과 유사점 등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기억과 그것이 연구주체들의 생활사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했다.

본 연구는 ‘내러티브식-생애사 인터뷰’ 분석방법에 활용하기 위한 인터뷰 자료수집을 위해서 2021년 7월 초부터-중순까지, 그리고 2021년 8월 중순부터-말까지 두 차례에 걸쳐 세 명의 연구주체들을 인터뷰했다. 연구주체들이 자신들의 머릿속에 담긴 경험을 보다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도록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되도록 연구자는 인터뷰에 최대한 개입하지 않았다. 또한 연구주체들의 이야기를 정리한 연구자의 연구노트를 연구주체들과 공유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그 과정에서 연구주체의 의미 전달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9월 초에 보충 인터뷰를 진행했다.

4. 연구주체들의 생애사에 나타난 동학농민혁명에 역사경험

1)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개인적인 역사경험

연구주체들의 생애사에 나타는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개인적인 역사경험의

14) 필자는 로젠탈(Rosenthal)의 ‘내러티브식-생애사 인터뷰(narrative-biographicisches interview)’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생애사 연구를 진행한 다음의 두 연구의 연구방법론을 차용했다. 양영자, 2009, 「후기노인들의 역사경험에 대한 생애사 연구: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에 관한 ‘개인적인 역사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1(3), 한국사회복지학회, 259쪽; 양영자, 2011, 「국제결혼한 농촌남성의 에이전시에 대한 생애사적 ‘사례이해’」, 『한국사회복지학』 63(1), 한국사회복지학회, 324쪽.

현재성은 주로 경험방식에 따른 차이를 보인다. 이하에서는 경험방식에 따른 차이에 주목하여 연구주체들의 생애사에 나타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개인적인 역사경험의 현재성을 재구성하고자 한다.

(1) 직접적인 역사경험의 개별화된 현재성

연구주체들의 생애사에 나타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개인적인 역사경험은 ‘학습경험’과 ‘체험경험’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개인적이고도 직접적인 역사경험의 현재성은 연구주체들의 경험양상에 따라 상이하다. 그런데 이러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경험양상은 체험된 생애사에서, 그리고 이러한 역사경험의 현재성은 이야기된 생애사에서 추론할 수 있다.

가. 직접적인 학습경험

본 연구주체들의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초창기 역사경험은 학창시절의 학습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초등학교 다닐때부터, 학교에서 ‘동학’을 너무 많이 접했어요. 그때는 선생님이 발생 배경과 전개 과정을 얘기해줬지만, 크게 관심은 없었어요. 근데 너무 자주 듣는 것과 달리, ‘동학’이 교과서에 수록된 분량이 왜 이렇게 작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B)

“그래도 누나(B)는 저보다는 조금 관심은 있었던 거 같아요. 저한테는 4·19나 한국전쟁 등에 대한 관심과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관심이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어떤 면에서는 교과서에 수록된 분량과 시험에 나올 비중들을 고려할 때, 동학에 대한 관심은 그다지 크지 않았어요.”(C)

“나도 학교다닐 때 선생님들한테 듣기는 했었죠. 근데 우리에들은 태어나서 성장한 곳이 정읍이다보니, 저보다는 훨씬 학교에서 많이 접했던 거 같아요.”(A)

대다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세 명의 연구주체들 역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초창기 역사경험은 학교에서 접하면서 시작됐다. 그리고 연구주체들이 태어나

서 성장한 장소가 이들의 학습경험에 직간접적인 역할을 했다.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당신도 학교 다닐 때 ‘동학’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지에 대해서요. 근데 남편은 거의 접한 기억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냥 ‘새야 새야 파랑새야’ 정도만 익숙하다고 해요.”(B)

“동생들이 애들 방학 때 우리집에 내려와서, 우리 딸이 방에서 동학농민혁명 관련 숙제를 하는 걸 보고, 진짜 정음이 다르긴 다르네. 그랬던 게 기억이 나요.”(A)

“나는 동학이 발생 배경이나 전개 과정, 이런 거보다는 여기에 가담한 참여자들의 전투 체험담에 관심이 조금 있었어요. 어렸을 때 할머니랑 같이 살아서, 할머니한테 동학 전투에 참여했던 사람들과 관련하여 마을에서 떠돌던 이야기를 물어본 적도 있구요. 근데 웬지 모르게 할머니는 동학 관련 과거사에 대한 기억을 하는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거 같아요.”(C)

위의 C의 인터뷰 내용은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직접적인 학습경험이라고 보다는 간접적인 학습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B와 C의 학습경험이 학교에서 그치지 않고 집으로 이어진다는 점과 C가 관심을 가졌던 내용들은 농학농민혁명담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C가 관심을 가졌던 전투 체험담과 처형 관련 내용들은 역사체험담 형식의 기록 자료로서 정리되고 있다.¹⁵⁾

이상에서 살펴본 세 명의 연구주체들이 겪었던, 그리고 겪는 동학농민혁명의 역사경험은 정음이라는 지역이 갖는 특별한 ‘공간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직접적인 체험경험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직접적인 역사경험의 현재성은 학습경험에 체험경험이 덧붙여짐에 따라 연구주체들 간의 상이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친밀성

15) 동학농민혁명 체험담과 증언록은 동학농민혁명종합지식정보시스템 (<http://www.e-donghak.or.kr/index.jsp>)과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이 이러한 상이한 의미부여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먼저 체험경험을 언제부터 하는가에 따른 의미부여의 차이를 보면, 학창시절에 시작한 생애사에서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전적지와 유적지들이 애뜻하고도 친밀한 장소로 인식되고, 그곳에서의 애뜻한 경험이 이들의 생애사에서 자양분으로 작용한다.

“참 어렸을 때부터 동학농민혁명 관련 전적지와 유적지들을 다녔던 거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항상 소풍 때 갔던 거 같아요. 그때는 이제 정말 딴 곳으로 여행 가고 싶다 그런 생각도 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내 삶 근처에 정말 애뜻한 장소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B)

“전교생이 다 그곳(황토현전적지)으로 소풍갔어요. 저한테는 조금 시시했죠. 학교에서 소풍 안가도 아빠랑 차타고 나가면 도처에 동학농민혁명 관련 전적지, 유적지가 있는 데 말이죠.”(C)

“어제 가족들 모두가 차타고 그곳들을 지나갔는데, 오늘은 우리 애들이 그곳으로 소풍을 가는 풍경이라니. 근데 애들은 장소가 어디든 소풍 그 자체가 좋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의미있는 장소잖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았어요.”(A)

장소가 친밀하다고 해서 각자 그 장소에서 느끼는 세부적인 것까지 같지는 않았다.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특별한 역사경험은 연구주체들에게 ‘친숙함’과 ‘애뜻함’을 더해주었다.

“우리딸이 국민학교 때 우연한 기회로 배우 문성근씨가 사회를 보는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고 기리는 TV프로그램에 나간 적이 있어요. 애가 그때부터 다르게 보기 시작한 거 같아요.”(A)

“내가 3학년이고, 누나가 5학년이었던거 같아요. 학교 끝나고 집에 왔는데, 누나가 자기 방송나간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뭐데, 그게. 물어보니까, 황토현전적지 근처에 있는 국민학교 학생들과 같이 동학농민혁명 전적지, 유적지 등을 함께 걸으면서,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한다는 프로그램이라고 했어요.”(C)

“솔직히 그 전에는 저도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담임 선생님이 방 송국에서 우리 학교 학생들이 황토현전적지 근처를 함께 걷는 프로 그램에 우리가 출연을 할거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학교가 끝나고 애들이랑 우리집에 와서, 같이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공부도 하고, 같 이 황토현전적지 근처도 가보고 그랬어요.(B)

직접적인 역사체험경험의 현재성은 체험에 대한 의식여부에 따라 애뜻한 의 미가 부여되고, 애뜻함과 친숙함은 같은 장소에 대해서도 상이한 의미부여로 이어졌다. 어릴적 직접적인 역사체험의 경험은 비슷한 배경과 함의를 갖고 있 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관심으로도 이어지게 된다.

“방송에 출연한 이후, 우리딸이 이제는 ‘광주’에 대해서도 묻기 시 작했어요. 또 남편이 ‘여명의 눈동자’를 녹화한 비디오를 자주 봤는 데, 거기 나오는 제주 4·3에 대해서도 물어봤던거로 기억해요. 근데 당시 저 한테도 제주 4·3은 익숙하지 않아서, 그냥 어물쩍 넘어갔던 거로 기억해요.”(A)

“지금 생각해보면, 여명의 눈동자에서는 제주 4·3이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왜 경찰이 민간인들에게 총을 쏘는지. 그 당시에 는 조금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왜 무장한 군인들이 광주 시민들에게 총을 겨눴는지. 당시에는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B)

특정한 역사적 사건의 자취를 지니고 있는 장소는 그 역사에 대한 “집단적 으로 규정된 장소 의식”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에드워드 켈프는 “장소 의식 은 같은 장소 출신의 사람들에게 그 장소 자체가 지닌 본질적으로 동일한 정 체성을 부여”한다고 말했다.¹⁶⁾ 이 점에서는 정읍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 지역 은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집단 기억과 의식이 존재했다.

“왜 그런지 몰라도, 학창시절에 사생대회를 하면 장소는 황토현이 었고, 당연히 주제는 동학농민혁명이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학교 에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공통의 집단 의식을 우리한테 심어주려고

16) 에드워드 켈프 저,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역, 2005,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87쪽.

했던 거 같아요.”(C)

“나는 정읍 출신이 아니어서, 어렸을 때는 큰 관심이 사실 없었어요. 근데 애들 소풍에 따라가면서, 저도 모르게 동학농민혁명에 젖어들었어요. 사실 소풍이 아니어도, 집 근처에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적지가 많이 있기도 했구요.”(A)

“제 기억에는 학교에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의미를 우리들한테 덧씌웠던 거 같기도 해요. 가령 황토현은 동학에 대한 지역 주민들과 이 지역 학생들에게는 공동의 정체성이었던 거 같아요.”(B)

이렇듯 세 명의 연구주체들에게 자신들이 살았던 정읍이라는 장소는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상징과 의미를 공유하면서 경험을 함께 하고 관련을 맺는 그러한 사적 장소이자, 의식화된 공적 장소였던 것이다. 물론 그에 대한 체험경험이 갖지는 않았다.

다. 의식적으로 구현된 장소성과 개별화된 현재성

역사적 사건에 대한 집단기억을 공간적으로 담고자 하는 공적 시도는 과거 연구주체들이 경험했던 역사경험을 깨우는 데 유의미한 기여를 하게 되며, 이는 이들의 현재 삶의 자양분이자 역사체험기억에 대한 자부심으로 이어지게 된다.

“노무현 정부때였던거로 기억하는데, TV에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명예 회복에 관한 법이 제정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읍시 덕천면에 기념재단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실 그전까지는 동학은 이 지역 사람들이나 관심을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국가에서 드디어 관심을 갖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A)

“제 친구가 살았던 집 인근에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 들어선다는 거예요. 그 친구네 집 부지를 국가에서 매입을 하고, 어쩔수 없이 개네 집은 이사를 갔어요. 근데 개는 자기네 땅이 비싸게 팔렸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암튼 덕천 인근 사람들한테는 기념재단이 생긴다는 게 나름 자부심이었어요.”(C)

“고등학교 졸업하고, 수도권으로 올라가서 바쁘게 살다보니, 동학을 생각할 여유가 거의 없었죠. 근데 쉬러 집에 갔는데 덕천에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시 어렸을 때 기억이 나더라고요. 특히 광주나 제주 4·3과 비교할 때, 동학의 의미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드디어 인정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B)

물론 국가가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세우는 공적 기념물과 기념재단 등은 “평등사상과 자유민주화의 지평을 연 근대 민족사의 대사건”¹⁷⁾들과 같은 이데올로기의 맥락에서 독점적으로 동학농민혁명을 규정하던 냉전적 관행을 기념물이라는 공간적 형태를 매개로 재생산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기록과 역사서술이 젠더편향적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제가 중학교 때 엄마한테, 동학농민혁명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거고, 그중에 거의 대다수는 남자들이었을텐데, 당시 여성들은 어떻게 살았어,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B)

“우리애가 사춘기때 동학이 여성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물어보는거예요. 정작 내가 거기에 답을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저도 들어본적은 없어요, 우리애의 질문에 대한 답을”(A)

“누나가 계속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다소 뼈뺀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동학의 의미, 당시 영웅들을 중심으로 보면 되지, 왜 남들은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거에 집중하냐고 물었던지 있었어요.”(C)

대개 역사적 사건의 기록은 강한 인상을 주는 데 집중된 데 반해, 사건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일상의 삶은 망각되는 경우가 많다. 이 점에서는 동학농민혁명도 예외는 아니다. 이는 세 명의 연구주체들의 기억에서도 드러난다. 이들을 인터뷰한 필자 역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기록이 전봉준을 비롯한 일부 참여

17)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홈페이지』 (검색일: 2021년 9월 20일).

자들에 대한 영웅적 서사, 전투담 강조 등에 편중된 데 반해, 당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가장들이 생명을 잃고 나서 겪게 되는 집안, 특히 배우자들이 겪었던 고통들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¹⁸⁾

(2)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역사경험의 잠재된 현재성

장소성에 기반을 둔 역사경험은 어느 역사와 관련된 경험이든 대체로 동일하게, 그 장소에 남겨진 사람들을 통한 경험이 그들과 관계된 사람들의 생애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런데 사람을 매개로 한 간접적인 경험은 역사적 과거와는 구별되는 방식으로 자리매김되는 현재성이 있다.

가. ‘남겨진 자(者)’를 통한 간접적인 역사경험

남겨진 자(A)를 통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역사경험의 현재성은 B와 C의 생애사에서 드러난다. B의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지금까지 20년간 수도권에서 학교과 대학원을 다니고, 현재는 결혼을 해서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 C의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 생활까지 정읍에서 한 이후 지금까지 15년간 수도권에서 유통업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따라서 B와 C가 정읍을 떠난 시점부터 이들에게 있어서 동학농민혁명에 경험은 A를 통한 간접적인 경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뭐, 나랑 동생(C)이야, 정읍에 살지 않고 바빠서 동학농민혁명과 유리된 삶을 살고 있죠. 뭐 학생 시절의 기억나는 경험으로 자리하고 있죠.”(B)

“근데 엄마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거 같아요. 정읍 시내 어디를 가도, 동학농민혁명 관련 표식이 남아 있잖아요. 또 우리집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바로 옆에 있어서, 차로 어디 갈때마다 그곳을 지나 갈 수밖에 없어요.”(C)

18)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전쟁과 분단을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재해석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성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 저, 박은정 역, 2015,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문학동네; 김귀옥 외, 2013, 『여성(들)이 기억하는 전쟁과 분단』 아르케; 김경학 외, 2009, 『전쟁과 기억: 마을 공동체의 생애사』 한울.

“내가 아빠가 돌아가시고, 이제 서울로 가자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엄마는 여기(정읍시 덕천면)가 좋다고, 니네도 고향이 있어야 하지 않냐고, 니 아빠의 자취가 아직도 여기에 남아있지 않냐고 하더라구요.”(B)

위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A가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직접적인 역사체험을 하게 된 것은 남편과의 결혼을 통해서 시작됐지만, A는 남편이 떠난 이후에도 동학농민혁명이 도처에 자리하고 있는 ‘그 장소’와 마주한 삶을 살고 있다. 또한 A의 자녀들의 삶에 내재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역사성은 A와는 달리 ‘집단’에서 ‘개인’으로, ‘직접’에서 ‘간접’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생애사에서는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역사경험이 과거와는 다소 분리되면서도 일시적으로 ‘절합(articulation)’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에 이하에서는 이러한 분리성과 절합성을 동시에 보이는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연구주체들의 역사경험의 현재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재구성하고자 할 것이다.

나. ‘남겨진 자(者)’를 통한 간접적인 역사경험의 잠재된 현재성

A의 생애사에서 동학농민혁명은 남편과의 결혼으로서 시작됐지만, 그녀의 이야기 속에서 드러나는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인식에서 남편이 위치할 곳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B와 C의 생애사에서 드러나는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인식에서는 A의 남편, 즉 B와 C의 아버지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뭐, 나야 남편과 결혼해서 ‘동학’과 함께 했잖아요, 근데 남편이 떠났다고 내가 어떻게 여기(정읍시 덕천면)를 떠나요. 내가 살아온 거의 대다수 시간이 여기였고, 그 가운데 남편과 아이들이 존재했는데. 그리고 나만 그러졌어요, 아직 여기에 남아있는 나이 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일 거예요. 이게 여자, 엄마가 살았었고, 살아가는 방식 이에요”(A)

“그래도, 엄마(A)가 아직 거기 있으니까, 나랑 동생(C)도 정읍을 자주갈 수 있는 거죠. 엄마가 이미 정읍을 떠났으면, 우리가 그곳을 자주 갈 이유도 없죠. 근데, 재미있는 건 정읍 톨게이트를 지나자마

자, 제일 먼저 마주하는 게 동학농민혁명이에요. 정읍이 바로 그런데요요.”(B)

“아빠제사나 명절, 해마다 그 시기에 정읍을 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정읍에서 동학농민혁명을 더욱 자주 소비, 소비라는 단어는 좀 그렇고, 더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거 같아요. 뭐 이 지역 출신인 저한테는 나쁠 게 없죠. 학창시절 생각도 나기도 하고 ...”(C)

이렇듯 남편의 죽음으로 인한 A의 개인적 불행의 생애사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은 주변화되는 경향성을 보이지만, B와 C의 생애사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은 평소에는 주변화되어 있지만, 명절과 휴가, 그리고 아버지 제사 등을 매개로 한 고향방문은 이들에게 다시금 동학농민혁명과의 조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다. 국가의 출현으로 인해 다시금 재현되는 여성의 삶

2004년 3월 5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동학농민명예회복법)』이 제정되고, 같은 해 9월 17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 회복 심의 위원회 출범했다. 또한 『동학농민명예회복법』에 따라 같은 해 11월 25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설립됐다. 이에 더해 2019년 동학농민혁명은 국가기념일로 인정을 받게 됐다. 2019년 5월 11일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된 제1회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에 참석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사람을 하늘처럼 받드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의로운 혁명이 125년 만에 비로소 합당한 인정”을 받게 됐다고 말하면서,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 동학농민혁명이 갖는 의미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동학민초들의 염원과 분노는 25년 동안 응축됐다가 1919년 3·1 독립만세운동으로 폭발했습니다. ... 동학농민혁명은 3·1운동으로 이어졌고, 3·1운동은 10년 후 광주학생독립운동으로 계승됐습니다. 해방 이후의 4·19혁명도, 5·18민주화운동도, 6월 항쟁도 동학정신에 뿌리를 두었다. ... 2016년 겨울부터 이듬해 봄까지 계속된 촛불혁명도 잘못된 권력을 백성이 바로잡는다는 동학정신의 표출이었습시다. 우리의 민주민족 의식과 역량을 일깨우고 길러준 동학농민혁명은 정당하게 평가되고 영구히 기억돼야 합니다.”¹⁹⁾

제 준비를 함께 하더라구요.”(B)

“딸이 저한테, 뭐 그런일까지 하러가냐고 해요. 근데 나를 포함해서 이 지역에 오래 살았던 사람들한테는 황토현은 쉽게 분리할 수 없는 그런 거예요. 애들은 나한테, 국가가 기념재단 등을 활용해서 공적 목적의식을 덧씌운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아요, 나 스스로 황토현이 내포하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기리는 일에 적극 참여하려고 하고, 그래요. 또 그리고 말로는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워요.”(A)

한편 필자는 연구주체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역사적 사건이 어떻게 전통으로 발견되고 선택되고 심지어 재창조되는지를 증명한 에릭 홉스봄(Eric John Ernest Hobsbawm)의 논의가 떠올랐다. 즉 홉스봄은 과거의 역사적 사건이나 전통들이 어떻게 기록되고 ‘전통으로 창조(invention of tradition)’되는지에 주목했다. 이에 대해 홉스봄은 과거의 역사적 전통들이 어떠한 시대적 배경과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지는가를 다음의 세 가지 측면으로 설명한다. 첫째, 공동체들의 사회통합과 소속감을 구축 및 상징화하기 위해서이다. 둘째, 제도, 권위, 지위 관계를 구축하고 정당화하기 위해서이다. 셋째, 사회화나 가치체계, 신념, 규범 등을 주입하기 위해서이다.²²⁾

물론 전통의 실체와 전통이 받아들여지는 이미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즉 어떠한 방식으로 국가가 역사적 사건과 전통들을 재구성하고자 하며, 이때 과연 국가의 의도가 수용자에게 그대로 적용될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개인으로서 국가가 부여하는 역사적 의미를 애뜻하게 여길 수 있지만, 그에 따른 부담이 나 혹은 나와 관계된 누군가에게 전가될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하다.

“우리 엄마가 아빠와 결혼해서 덕천에 살면서, 내가 어렸을 때 세명의 할머니를 모시고, 지금도 집안의 대부분의 제사를 혼자 지내고 있어요. 지금은 아빠가 돌아가셨는데도 계속하고 있어요. 뭐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엄마의 생애는 과거 동학에 참여했던 남편이 죽자 남편이 해야 할 일을 떠맡은 여성들의 삶의 현재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C)

22) 에릭 홉스봄·사라 모건 저, 박지향 외 역, 2004, 『만들어진 전통』 휴머니스트.

“저는 국가에서 동학농민혁명을 국가기념일로 인정하고,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고 기념재단들을 만든 것이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다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로 여성들은 음식을 마련하는 등의 모습을 보면, 역사를 기억하고 창조하는 방식이 너무나 남성중심적, 젠더편향적이라고 생각해요.”(B)

또한 연구주체들은 역사를 기념하는 방식이 상업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특히 역사적 기억이 상업화되면서 지역적 정체성이 부각되지 않고 주변화된다는 것이었다.

“평소에 남편이 학기중에 바빠서 정읍에 가기 힘든데, 2019년인가 남편이 5월에 여유가 있어서, 그때 정읍에 내려간 적이 있어요. 근데 엄마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 기념행사를 하는데, 가수 ○○○가 온다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가보자고 재촉하고, 엄마가 내가 애기를 봐준다고 가보라고 해서. 남편이랑 같이 갔어요. 저도 오랜만에 육아에서 잠시 떨어져서 가수 공연도 보고, 음식도 사먹고 재미있었어요. 근데 별다른 특색은 안보였어요, 뭐 사실 동학농민혁명 기념행사라고 적혀 있지 않았으면, 몰랐을꺼예요.”(B)

“그래도 유명한 가수들이 와야지, 사람들이 동학에 관심을 갖고, 이 지역에 옮겨요. 그렇게라도 해야지 지역경제도 살고, 이 혁명에 관심을 갖게 될꺼예요.”(A)

“축제를 향유하는 방식이 외지 사람들은 돈을 쓰고 즐기지만, 정작 이 지역 사람들은 즐기고 향유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 유치할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팔지만 보여요. 뭐, 나도 가수 ○○○가 와서 동학농민혁명이 오늘의 시대상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고, 이게 이 지역의 지역정체성을 부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이런 소리를 안하겠지만, 지금의 방식은 다소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전국 어디를 가도 이러한 방식으로 축제를 하는 데, 그런 것들과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B)

이렇듯 연구주체들의 생애사에서 동학농민혁명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기억

되고 재구성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국가가 들어오면서 개인화된 양상은 보다 미묘한 입장차로 드러나게 된다. 여전히 정읍에 남겨진 자인 A를 통해서 B와 C가 동학농민혁명과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고, 국가가 동학농민혁명을 국가기념일로 인정하고, 관련 특별법 제정과 기념재단을 만든 것이 B와 C에게 학창시절을 떠올릴 수 있게 했다.

그러나 남겨진 자가 그곳에서 여전히 동학농민혁명 기념행사와 연계된 삶을 사는 것을 B와 C는 다소 미묘한 감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B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현재 동학농민혁명이 일반인들에게 기억되고, 체험되는 방식의 기저에 남성중심적, 젠더편향성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 맺음말

이상으로, 전라북도 정읍시 황토현 전적지 근처에서 생활사적으로 동학농민혁명을 경험해 온 세 명의 연구주체의 생애사에 나타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역사경험의 양상과 그것의 현재성을 살펴보았다. 그간 동학농민혁명은 미완의 혁명이었지만, “19세기 후반 우리나라와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를 변화시키고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하는 과정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을미의병 활동, 3·1운동, 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의 모태로서 오늘날 평등사상과 자유민주주의 지평을 연 근대 민족사의 대사건”으로 인식되었다.²³⁾ 이러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의에 필자 역시 동의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 필자가 보고자 했던 부분은 과거 역사적 사건을 둘러싼 “기억과 망각”의 도식, 특히 승자중심의 역사서술로 인해 간과되어온 희생자의 입장을 적극 사유하는 최근 역사학계의 논의에서도 주목받지 못했던 현시대를 살고 있는 일반인들이 체험하고 사유하는 역사인 것이다. 이에 대해 앞서 필자는 생성되는 역사(기억)과 생성된 역사(기억)의 재구성이라고 개념화했다.

주지하듯,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일반인들이 체험, 경험하고 있는 역사는 기록화된 역사와 달리, 합리적이거나 목적의식적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일반인들이 일상에서 접하고, 사유하는 역사는 생활사적 맥락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당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상이한 방식으로 체험된

23)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홈페이지』 (검색일: 2021년 9월 22일).

다. 국가사, 개인사, 마을사 중심으로 기록되어온 역사서술에 더해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일반인들이 과거의 국가사, 개인사, 마을사를 개인적으로 체험, 인식하고, 이를 자신들만의 사유체계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본고는 세 명의 연구주체들의 생애사에서 나타나는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개인적 역사경험은 경험방식과 세대들의 요소가 맞물리면서 그들의 생애사에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재구성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특히 필자는 세 명의 연구주체들이 함께 살고, 체험했던 정읍이라는 장소가 한편으로는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집단적인 의미와 상징을 공유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곳에서 경험한 역사는 개별화된 방식의 현재성을 보인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장소성에 기반한 과거의 역사를 사유하고 경험하는 방식은 그 장소에 여전히 위치하고 있는 ‘남겨진 자’를 통해서 경험되지만, 이러한 간접적인 역사경험의 현재성은 역사주체들 간에 ‘분리성’과 ‘절합성’을 동시에 보인다. 이런 상황에 국가의 개입은 연구주체들의 생애사에서 미묘한 방식으로 인식되게 된다.

필자는 세 명의 연구주체들과 오랜 시간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역사’문제와 관련하여 ‘생성’이 갖는 의미를 깊게 탐문하게 됐다. 일반인들이 (텍스트의 형식으로) 접하는 역사는 국가, 기억, 권력, 재현의 문제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지만, 실제 일반인들이 체험하는 역사는 경험에서부터 시작된다. 또한 일반인들의 기억속에 존재하는 역사는 특정한 국면(이를테면 국가의 개입)에서 다시금 재구성되기도 한다. 다만 새롭게 생성되는 역사(경험)과 생성된 역사(경험)의 재구성은 각기 다른 양상으로 역사체험자들의 생애사에서 나타나게 된다.

이처럼 기존의 역사(기록)와 역사서술의 문제를 ‘과거에 대한 기억하기 (remembering the past)’라는 방식이 아닌,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식(communicating the past)으로 접근하는 것은 “역사란 무엇이며, 무엇이 역사적인 것”인지에 대한 기존의 통념에 재고를 요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본고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을 중심으로 살펴봤지만, 비슷한 접근방식은 한국전쟁, 제주 4.3사건, 광주민주화운동 등의 사례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들이 현시점에서도 많은 논쟁과 역사적 의의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역사문제를 생성의 관점으로 살펴보는 작업은 매우 자연스럽게 의미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역사적 기억을 세 명의 제한된 연구주체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분석하고 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첫째, 일반 대중의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역사인식의 형성과 재구성이

라는 문제의식을 일반화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수의 연구주체들을 선정하고 인터뷰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인터뷰 대상자를 보다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하나의 역사적 사건을 두고도 ‘세대 간’, ‘남녀 간’, ‘세대 내’, ‘성별집단 내’, ‘지역 간’, ‘지역 내’에도 각기 다른 기억과 그에 따른 평가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²⁴⁾

이러한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본 연구를 통해서 필자는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역사적 경험이 ‘남겨진 자(者)’를 통해서 가족 구성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세밀하게 그려내는 데 집중했다. 이에 필자는 인터뷰 대상자 선정의 다각화와 양적 확대, 이를 통한 일반인들이 소유하는 생성으로서의 역사라는 문제의식의 일반화 문제를 후속 연구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논문접수일: 2022. 03. 01. / 심사개시일: 2022. 03. 28. / 게재확정일: 2022. 04. 06.

24) 심사위원분들께서 사례연구의 모집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필자 또한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본 연구가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기억과 역사경험을 일반인들의 시선에서 조명해보는 시론적 차원의 글이라는 점에서, 심사위원분들의 논평을 후속연구에서 보다 깊이 있게 반영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경학 외, 2009, 『전쟁과 기억: 마을 공동체의 생애사』, 한울.
- 김귀옥 외, 2013, 『여성(들)이 기억하는 전쟁과 분단』, 아르케.
- 나탕 비슈텔, 2010, 『기억과 역사 사이에서』, 유택림 편역, 『구술사, 기억으로 쓰는 역사』, 아르케.
- 도날드 A. 리치 저, 선동유 외 역, 2016, 『현대 구술사 연구의 현장』, 선인.
- 박상란, 2017, 『금기된 과거사에 대한 여성의 기억과 의미: 여계(女系)전승 동학 농민혁명담을 중심으로』, 『동학학보』 44호, 43-68쪽.
- 박상란, 2019, 『제주4.3에 대한 여성의 기억서사와 ‘순경 각시’』, 『Journal of Korean Culture』 45권, 301-333쪽.
- 백지은, 2014, 『설화적 모더니즘: 라틴문학에 마술적 리얼리즘이 있다면』, 김연수 편, 『네가 누구든 얼마든 외롭든』, 문학동네.
-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 저, 박은정 역, 2015,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문학동네.
- 안 반시나 저, 2010, 『기억과 구전』, 유택림 편역, 『구술사, 기억으로 쓰는 역사』, 아르케.
- 양영자, 2009, 『후기노인들의 역사경험에 대한 생애사 연구: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에 관한 ‘개인적인 역사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1권 3호, 255-281쪽.
- 양영자, 2011, 『국제결혼한 농촌남성의 에이전시에 대한 생애사적 ‘사페이해’』, 『한국사회복지학』 63권 1호, 317-342쪽.
- 에드워드 켈프 저, 김덕현, 김현주, 심승희 역, 2005,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 에릭 홉스봄, 사라 모건 저, 박지향 외 역, 2004, 『만들어진 전통』, 휴머니스트.
- 육영수, 2013, 『역사, 기억과 망각의 투쟁』, 『한국사학사학보』 27호, 263-284쪽.
- 이낙연, 2019.05.11, 『제1회 동학농민혁명 기념사』,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전희진, 박광형, 2016, 『역사적 기억의 덧쓰기(palimpsest)에 대한 국면사적 접근: “용산 전쟁기념관”과 “제주 4·3 평화공원”의 비교』, 『문화와 정치』 3권 1호, 1-25쪽.
- 황 희, 2021.05.11, 『제127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네이버 국어사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홈페이지』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Alexander, J. C., 1993, “Citizen and enemy as symbolic classification: On the polarizing discourse of civil society,” in M. Fournierand & M. Lamont, eds. *Where culture talks: Exclusion and the making of society*. Chicago University Press.

Foote, K. E., 1990, “To remember and forget: Archives, memory, and culture,” *American Archivist*, Vol. 53, pp. 378-392.

<Abstract>

Local People's Memory and Historical Awarenes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through a Life-History Approach

Mo, Chunheung*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current meaning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with a life-historical approach that pays attention to the process in which the subject (re)constructs life from his/her own point of view. More specifically, this study analyzes how citizens living in the present era, rather than state-centered or record-oriented history, perceive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and how to construct such a perception. To this end, this study examines the memorie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drawn by three ordinary people through a 'biographical narrative interview' and how they construct their own perception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is study,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personal historical experience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appearing in the life histories of the three research subjects are different and reconstructed in their life histories as the elements of experience and generations intersect. In particular, I believe that the place called Jeongeup, where the three research subjects lived and experienced together, shared the collective meaning and symbol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on the one hand, but on the other hand, the history experienced there reflects the presentness of the individualized method. It can be seen that In addition, the way of thinking and experiencing past history based on place is experienced through the 'remained' still located in the place, but the presentness of this indirect historical experience is 'separation' and 'articulation' between historical subjects. were shown at the same time.

Key Words : Donghak Peasant Revolution, Memory, Perception, Historical Experience, Life History

* Hanyang Institute for Conflict Resolution